

오페라로 전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상'

"우리는 수많은 죽음을 만나왔습니다. 그 어떤 죽음이라도 우리는 그저 머리 숙여 애도하곤 하죠. 그리고 또 다시 작은 희망을 품고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 앞에서 침잠하지 않는 희망을 향해 '비상'하는 마음으로, 이번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기민정 연출가의 맑은 삶과 죽음에 감춰진 희망을 한번쯤 생각해볼게 한다. 한편으로 공연을 통해 들려줄 메시지가 어느정도 가늠이 된다.

인간 내면의 절박한 목소리를 오페라로 형상화한 '레 미제라블', '레퀴엠' 두 작품은 불후의 명작으로 손꼽힌다. 이들은 죽음을 딛고 아름다운 삶을 희망하는 주제로 인해 지금까지 수많은 악극단에 의해 재창작됐다.

광주시립합창단이 제193회 정기연주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상'을 오는 9~10일 이틀(오후 7시 30분)에 걸쳐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연다.

공연은 19세기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 작 '레퀴엠'을 먼저 들려준다. 망자를 진혼하는 곡 레퀴엠은 모차르트, 드보르자, 생상스, 가브리엘 포레 등 시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음악가들이 악상으로 삼아온 명작이다.

그중에서도 베르디 버전의 레퀴엠은 우울한 분위기의 진혼곡들과 달리, 종교음악의 분위기를 덜어내고 활기찬 오페라의 성격을 더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9~10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불후의 명작 '레 미제라블'·'레퀴엠'

작중 극적 요소가 가장 도드라지는 제2장 '진노의 날'은 강렬한 도입부로 인해 영화 '아마데우스' CF광고 등에 활용됐다. 초기에는 엄숙한 '미사곡'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베르디의 색채를 가미한 덕에 레퀴엠을 감상하는 묘미를 기대할 수 있다.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레 미제라블'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장 발장의 일생을 담은 작품으로 인간 존엄과 저항정신 등이 주제에 녹아있다.

레 미제라블의 극중곡 '프롤로그', '별들', 'I Dreamed A Dream', 'Master of The House'이 관객들을 만난다. "사랑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꿈꾸었고/ 신은 저비로울 거라고 꿈꾸었어요/ 그 때 난 젊고 겁이 없었죠/ 꿈을 만들고 써버리고 낭비했어요."('I Dreamed A Dream' 중에서) 등 비극적이면서도 서정적인 가사는, 장 발장의 절망적인 심경과 맞물려 몰입도를 높인다. 마무리는 모든 단원들이 힘차고 장엄하게 부르는 'One



황유순 지휘자

Day More'가 장식할 예정이다.

지휘는 서울대 음대 성악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를 졸업한 황유순이 맡았다. 황씨는 "광주의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며 모든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마음에서 지휘에 임할 것"이라며 "이번 레퀴엠은 그저 망자를 기리는 '장송곡'이 아니라 더 밝은 광주를 희망하는 '미래의 노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출을 맡은 기민정은 한예중 오페라연출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극단 '어서와' 예술감독이자 배우 이명덕의 연기,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전남의 연주도 볼 수 있다.

광주시립합창단 이준 부지휘자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베르디의 '레퀴엠'과 '레 미제라블'은 때회 공연 때마다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며 "이번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아낸 만큼 광주 시민들께 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석 2만 원, A석 1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합창 공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상'을 위해 리허설을 진행하는 광주시립합창단의 모습. <광주시립합창단 제공>

'질문하는 삶의 언어-미술'

독립서점 러브 앤 프리, 9~30일 독립기획자 천윤희 강연

삶의 방식으로서의 현대미술과 작품을 들여다 보고 다양한 의미를 사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독립서점 러브 앤 프리(남구 양림동)는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미술 강연을 진행한다. '질문하는 삶의 언어-미술'이 주제이며, 강연은 독립기획자 천윤희가 맡

는다. 독립기획자 천윤희는 문화예술교육, 예술경영, 지역 및 미술 등을 테마로 인터뷰하고 글 쓰고 강의하는 연구자다.

먼저 9일에는 '삶에 질문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언어, 미술' 시간으로 '반 고흐 & 빅 무니즈'의 삶을 이야기한다. 16일에는 '니키트 생활 & 루이즈 부르주아'의 삶을 모티브로 '상처 입은

영혼, 예술로 치유하다'를 나눌 예정이다. 23일에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 안은미'를 주제로 '예술, 그 생애 전환의 에너지'를 강의한다.

마지막 시간은 '마크 로스코 & 빌 비올라'가 주제. 깊은 사유와 명상으로 이끄는 예술을 다채롭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다.

천윤희의 독립기획자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현대 미술 작가 및 작품을 들여다보고 우리 삶에 직결된 질문들로 함께 대화하고 자기 성찰과 상호 배움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착순 10명.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미라 시인 '파리가 돌아왔다' 펴내

지리산문학상 수상시집... '풍찬노숙'·'아플 때' 등 50여편 수록

박미라 시인의 제18회 지리산문학상 수상 시집 '파리가 돌아왔다' (달소)가 발간됐다. 작품집에는 '풍찬노숙', '아플 때', '파리가 돌아왔다' 등 오랫동안 갖고 다듬은 50여 편의 시들이 수록돼 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언어로 형상화한 작품들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감성을 선사한다.



쓰는 것은 눈앞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화자는 '한 줄 때문에' '어둠이 달게 느껴질 정도로 글을 쓴다. 그것은 글이든, 자신이 추구하는 세계든, 인간에 대한 애정이든 다른 가치의 대상을 포괄한다.

오민석 문학평론가에 따르면 "그녀는 거대 서사로 목청을 높이지도, 이념의 뜨거운 날로 세계를 겨누지도 않지만, 존재와 세계의 몸통에 줄줄이 풀린 구멍들을 드러낸다"며 "자만으로 가득찬 세계가 감추고 있는 무수한 흠집들이야말로 존재의 본래성을 구축하는 것들"이라고 평한다.

"오지 않은 편지에 답장을 쓴다/ 앵두꽃이 피는 중이라고 쓴 행간에서 그름밤 뉘새가 난다// 백년쯤 후어나 분가입납(本家入納)으로 도착할 답장에서/ 문득, 강물이 흐른다 // 앵두나무 밑으로 자리를 옮겨/ 오지 않은 편지를 환하게 읽는다/ 마음에 적은 편지가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웃기도 했었지만// (중략) // 꽃에도, 나무에도 보여줄 수 없는 한 줄 때문에 나는 이 어둠이 달다"

위 시 '해탈'에서는 답장이 오지 않은 편지를 쓰는 화자의 담담한 심사가 드러나 있다. '백년쯤 후어나' 도착할 지도 모르는 편지를

포괄한다. 그렇듯 작품들의 기저에는 어둠을 뚫고 나가는 빛의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 결핍과 절망의 시대 그런 시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적잖은 위안으로 다가온다.

박 시인은 "간절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 민망하고 송구하여 목숨 쪽으로 얼굴 돌기 어렵다. 다시, 간절을 발굴하고 언 땅에 묵은 씨앗을 파종하겠다. 나중에 나중에 받아의 기록을 더듬어 내게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인은 대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시집 '비 오는 저녁에도 도착할 수 있을까', '서 있는 바람을 만나고 싶다' 등을 펴냈으며 충남시인협회상 분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호랭이스쿨 2기 '꽃들에게 희망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 <청년문화허브 제공>

청년문화허브 오영아 씨, 11일 '엄마라는 꽃을 그리다'

예비 문화기획자들을 위한 청년문화허브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호랭이 스킵'에서 신진 문화기획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총 16개 프로젝트가 오는 19일(종료일 상이)까지 펼쳐지고 있다. 그 가운데 오영아 씨가 기획한 '엄마라는 꽃을 그리다' 프로젝트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동명동 동명청년창작소에서 열린다. '안경엄마들을 위한 꽃 그리기' 프로젝트를 표

방하는 이번 행사는, 갠년기 여성들에게 스스로를 돌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기획자 오영아 씨는 "갠년기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관심"이라며 "엄마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자녀들이,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10-509001 |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